

# KIA 네일 “팀 승리 최선...후반기엔 승운 좀 따라 주길”

폭우로 3일 연속 경기 취소  
내일 NC전서 6승 사냥 나서  
“나성범·김선빈 등 복귀 환영”



하늘만 울려본 제임스 네일이 22일 승리 사냥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는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NC 라일리 톨슨과의 선발 대결을 준비했지만 날씨가 두 선수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17일 하루에만 광주에는 426.4mm의 폭우가 쏟아졌다. 18일에도 비가 계속되면서 이들 연속 경기가 우천취소됐다. 19일에는 모처럼 훈련 시간에 맞춰 해가 뜨기는 했지만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았다. 내내 이어진 비에 마운드와 그라운드 흙이 유실되면서 그라운드 사정으로 경기가 또 취소됐다.

결국 3일간 마운드 출격을 기다렸던 네일과 라일리는 후반기 첫 시리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KIA는 20일 이의리를 선발로 내세웠고, NC에서는 신민혁이 선발로 나섰다.

좋은 컨디션으로 후반기 첫 등판을 준비했던 만큼 네일에게는 하늘이 야속했다.

역대급 폭우에 퇴근길 가슴을 졸이기도 했던 네일은 날씨가 갠 뒤에는 점통더위를 만났다. KIA 2년 차 네일에게도 쉽지 않은 한국의 여름이다.

한국말로 “살벌하다”고 말하면서 웃은 네일은 “2년째여도 날씨가 적응은 안 된다. 그래도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낫다”고 여름나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날씨의 영향으로 준비했던 후반기 첫 등판이 미뤄진 것은 아쉽다.

네일은 “올스타전에 앞서 2경기에서 잘 던져서 좋은 리듬으로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갔다. 좋은 리듬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야구는 가끔 이렇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이 무너지지 않게 잘 관리



17일부터 이어진 비로 3일 연속 선발 등판이 무산됐던 KIA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22일 LG를 상대로 후반기 첫 승을 노린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하면서 유지하는 것이다. 화요일 등판에 맞춰 잘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네일은 전반기에 18경기에서 나와 109.1이닝을 책임지면서 2.3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네일은 “전반기를 잘 치른 것 같다. 지난 시즌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개선한 부분들이 있다”며 “체인지업 비율을 높였고,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 것 같다. 더 집중하게 경기를 하면서 전반기를 잘 보냈다”고 평가했다.

올 시즌 네일의 가장 큰 변화는 체인지업이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변형 체인지업에 공을 들였던 네일은 이를 활용해 더 많은 이닝을 만들어가고 있다.

네일은 “지난 시즌에는 싱커와 스윙퍼를 던지는 두 피치 유형의 선수였다. 체인지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걸 장착하면서 투구 수를 효율적으로 가져가면서 7회까지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스윙퍼가 커트 되면 체인지업으로 타이밍을 뺏거나 초반 카운트 승부를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지난해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침착하게 마운드를 지키고 있지만 승운은 부족했다. 네일은 올 시즌 출전한 18경기에서 13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승수는 5승에 그치고 있다.

5승 2패로 전반기를 마감한 네일은 “승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5, 6, 7이닝을 하면서 팀승리에 기여를 한다던 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후반기에는 더 운이 따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더 많은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고 싶은 만큼 나성범과 김선빈 등 부상 선수들의 복귀가 반갑다.

네일은 “나성범, 김선빈 그리고 이의리도 와서 좋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성범과 김선빈은 KBO를 대표하는 선수로 오랜 시간을 뛰었다. 경기장 뿐만 아니라 라커룸, 라인업에서 존재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이들의 복귀를 반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안세영, 일본 오픈 완벽한 탈환 ‘시즌 6승’

중국 왕즈이에 2-0 완승  
남북 서승재-김원호도 우승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세계 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정상 탈환했다.

안세영(세계랭킹 1위)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즈이(2위)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안세영은 1게임 10-10으로 맞선 상황에서 내리 8득점 해 승기를 잡았다.

이어진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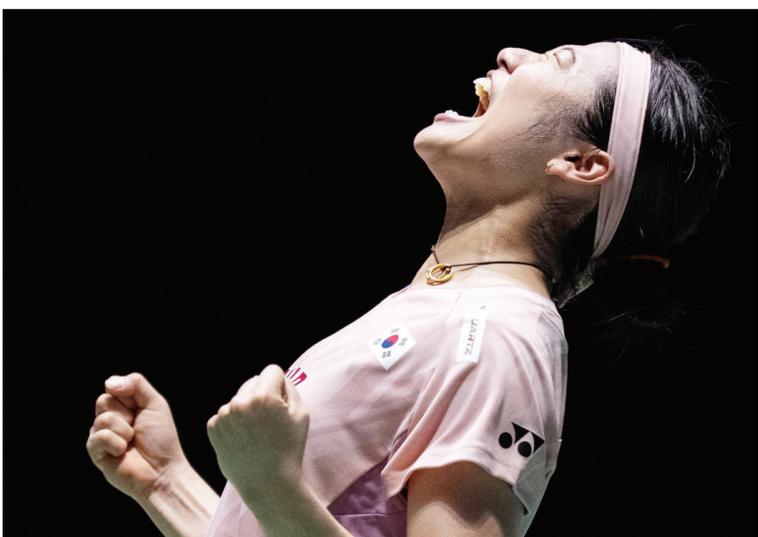
지난 인도네시아오픈에서 왕즈이에게 2-1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했던 안세영은 두 번 연속 결승에서 왕즈이를 물렸다.

안세영은 32강 맞타 녹 인타는 (태국·10위), 16강 김가은(삼성생명·18위), 8강 천위페이(중국·5위), 4강 군지 리코(일본·32위)를 모두 2-0으로 돌려세우며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올해 말레이시아오픈·인도오픈·오를레앙 마스터스·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이번 시즌 벌써 여섯 번째 우승을 이뤘다.

2023년 일본오픈 단식 정상에 서고 지난해엔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직후 무릎과 발목 부상을 이유로 이 대회에 불참했던 안세영은 2년 만에 일본 오픈 챔피언에 다시 올랐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



안세영이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에서 우승한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용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제압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서승재-김원호 조는 1게임을 무난하게 따냈으나 2게임에서는 중반까지 끌려갔다.

둘은 12-14로 뒤진 상황에서 내리 7득점 해 한

번에 전세를 뒤집었고 여세를 몰아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 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연합뉴스

## 탬파베이 김하성 ‘멀티 히트’...역전승 발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뛰는 김하성이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활약으로 역전승에 발판을 닦았다.

김하성은 20일 열린 2025 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홈경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를 치고 도루 1개와 득점 1개를 곁들였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했던 김하성은 멀티 히트 활약으로 반등을 예고했다.

탬파베이는 김하성이 역전승의 발판을 놓은 덕에 4-3으로 승리했다.

김하성은 3회 첫 타석에서 선두타자로 등장, 상대 선발 던 크레머를 상대로 중전 안타를 뽑았다.

그러나 후속 타자 맷 타이스 타석에서 런 앤드 히트 작전을 펼쳤다가 타이스의 타구가 1루수 정면으로 향해 귀루하지 못하고 아웃됐다.

5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익수 직선타로 몰러나

며 아쉬움을 남겼던 김하성은 팀이 1-2로 끌려가던 8회 다시 선두 타자로 등장했다.

그는 우전 안타로 출루해 기회를 만들었고, 과감하게 시즌 2호 도루에 성공했다.

타이스의 외야 뜬공 때 3루까지 진루한 김하성은 캔들러 심프슨의 안타 때 홈을 밟아 2-2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1사 만루 기회를 이어간 탬파베이는 요나탄 아란다의 1루 땅볼 때 상대 1루수의 홈 야속구를 틈타 주자 2명이 홈을 밟아 4-2로 역전했다.

탬파베이는 9회 1점을 내줬으나 승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 그는 왜 야구 불모지 북한에 갔을까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라카리 회장 방북...소프트볼 활성화 나서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리카르도 프라카리 회장이 19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리카르도 프라카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계야구 및 소프트볼연맹대표단이 19일 평양에 도착하였다”며 체육성 부상 박천중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이들을 영접했다고 전했다.

농구 선수 출신인 박천중 부상은 2018년 6월 판문점 남북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중앙통신은 프라카리 회장 일행이 방북한 이유와 일정은 설명하지 않았다. WBSC도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야구 불모지에 가깝다. 2015년까지는 공화국선수권대회 종목의 하나로 남포에서 야구 경기가 진행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참가한 야구 국제대회는 1993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마지막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프트볼은 야구에 비해선 강국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역시 최근에는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에 따라 프라카리 회장이 북한에서의 야구·소프트볼 활성화 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프라카리 회장은 지난 2014년 방한 당시 대한야구협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야구 보급을 위해 서한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방문하겠다”는



북한을 방문한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리카르도 프라카리 회장.

〈조선중앙통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제스포츠 전문매체 ‘인사이드 더 게임스’에 따르면 프라카리 회장은 2016년 이란을 방문해 야구·소프트볼 발전에 대해 논의하면서 북한에서도 유사한 개발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프라카리 회장의 방북과 관련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양혜영 회장은 중국 측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에 야구소프트볼 협회가 새로 생겼나 보더라. 당장 야구를 하는 건 어려우니까, 베이스볼 5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프라카리 회장이 권유하려고 간 것 같다”고 추정했다.

베이스볼 5는 이른바 ‘주먹 야구’라고 불리는 구기 종목으로 장비를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WBSC가 2017년 개발한 이 종목은 2026 다카르 세계청소년(유스)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양 회장은 “베이스볼 5는 야구 보급이 잘 안되는 아프리카나 유럽 쪽에서 많이 확산하고 있다. 그 대상 중에 하나로 북한이 들어간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